

## “아이리쉬 불” 그리고 “바이블”: 조이스의 탈신화적 아이러니를 통한 언어의 재탄생

김 경 숙

### I. 들어가며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스』(*Ulysses*) 중 14번째 에피소드인 「태양신의 황소」(“Oxen of the Sun”)는 삼일 동안 산고를 겪던 퓨어포이(Mina Purefoy) 부인의 출산과 맞물려 조이스 특유의 문체실험이 절정에 달한 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지하듯 고대 영시부터 빅토리아시대 산문에 이르기까지 영문학사상 길이 남을 주요 작가들의 문체를 그대로 모방하여 쓴 장이다. 기존의 비평가들은 주요 작가들의 다양한 문체를 면밀히 모방한 14장을 “문체의 박물관”(museum of styles)이라 일컬으며 조이스의 탁월한 문장력에 많은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14장 전체를 문체의 문체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조이스 문학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장 전체의 주제인 “아기의 탄생”은 조이스 문학 전반에 걸친 주제인 “말/답론을 통한 혁명” 내지는 “언어의 육화”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키에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가 주장하는 “무한한 절대적 부정성”으로서의 아이러니와 관련지어, 14장을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개념인

“신화로서의 언어”에 대한 반박으로 분석할 것이다. 특히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문제를 빌어 아일랜드 황소(irish bull)를 등장시켜 식민화에 대한 우화를 도입한 부분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속담이나 격언 속에 잠복해 있는 정치적 의도를 들추어낸다. 직접 아일랜드 황소를 등장시켜 “말도 안 되는 농담”을 의미하는 이디엄으로서의 “Irish bull”의 이데올로기적 의도를 추궁하는 조이스의 전략은 신화가 되기 전 언어의 기의를 되찾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이스는 다음 에피소드인 「키르케」(“Circe”)장에서 “bible”에 대한 말장난(pun)으로서 “바이불”(buybull, U 15.2242)이라는 조이스 특유의 신조어를 등장시켜 식민화와 연루된 경제적 침탈과 종교적 영향을 꼬집는다. 바르뜨 이론에서의 “신화”의 개념을 “탈정치화된 언어”라고 한다면, 「태양신의 황소」 에피소드에 드러난 조이스식의 아이러니는 언어가 갖는 환상과 이데올로기 속에서 탈정치화된 의미를 다시 복원하는 “탈신화화”(de-mythification) 내지는 “탈환상화”(disillusionment)로 해석할 수 있겠다. 결국 표면적으로 문학의 발전사를 면밀히 되짚는 14장은 식민화와 신화화 이전 상태의 언어로의 회귀에 대한 조이스의 열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II. 탈정치화된 언어로서의 신화

바르뜨는 그의 역작 『신화들』(*Mythologies*)에서 언어에 각인된 한 사회의 가치 체계로서의 신화를 분석한다. 바르뜨에게 있어서 신화는 일종의 신비화된 언어체계인데 이는 탈정치화된 언어-물론 구어(oral speech)로 국한되지는 않지만-로서 현실을 왜곡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사람들에 의해 언급되는 구술적(oral)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적 전유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된다고 바르뜨는 언급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단란 무언의 존재에서 구술적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사물에 관해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109).

물론 신화를 “시간과 역사의 흐름 속에 한정된 언어의 특수한 의미” 정도로 정의 내린다면 그 안에 아무런 위협성도 정치성도 내포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그

러나 부르주아 사회 속에서 신화는 지배 이데올로기 혹은 식민주의와 공모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신화가 갖는 탈정치적 위험성에 대해 바르뜨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예가 있다: 나는 이발소에 와 있고 *Paris-Match*라는 잡지가 내게 주어진다. 표지에는 프랑스 군복을 입은 한 젊은 흑인이 눈을 들어 삼색국기에 고정된 채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사진의 의미이다. 그러나 내 말이 순진하게 들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그것이 내게 무얼 의미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프랑스가 위대한 제국이라는 사실, 피부색 차별을 떠나 프랑스의 모든 아들이 충성스럽게 그 국기 아래 봉사한다는 사실, 그리고 식민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소위 압제자라 할 수 있을 대상에게 봉사하는 이 흑인이 보이는 열정보다 더 나은 대답은 없다는 사실이다. (116)

프랑스 삼색 국기 아래 충성을 맹세하는 흑인은 민족주의라는 신화 속에 희생되어 흑인에 대한 프랑스 식민주의의 폭력성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식민화의 알리바이(an alibi of coloniality)로 전락한다(129). 결국 식민화라는 실제의 역사는 증발하고 흑인의 검은 피부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인종차별의 의미 역시 비워진다(117). 군복을 입고 국기에 경례를 하는 흑인의 자발적인 민족주의 속에 프랑스 식민주의의 폭력성이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인 맥락이 거세된 채 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에서 바르뜨는 신화를 일종의 “언어강탈”(myth as stolen language)이라고 주장한다.

신화는 언제나 언어강탈이다. 나는 거수경례하는 흑인에게 강도질을 하는 것이다. 그를 하나의 예나 상징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제국을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식민화에 의한 강탈이다. (131, 132)

프랑스 국기 아래 충성을 다짐하는 흑인 군인의 예를 다시 들자면, 흑인 군인의 개인 혹은 인종적 역사는 프랑스 삼색 국기 아래 증발해버리고 흑인 군인의 이미지가 제국주의를 당연시하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과정은 식민화를 통한 강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군복을 입고 국기 아래 경례를 하는 순간 흑인 군인은 프랑스 제국적 민족주의의 기표가 되고 실제 개인

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흑인이 갖는 기의는 강탈당하며, 따라서 말하는 주체가 아닌 일종의 “말하는 송장”(speaking corpse)으로 전락하게 된다(133).

따라서 바르트는 신화를 “탈정치화된 언술행위”(depoliticized speech)로 규정하며 신화의 역할은 현실을 비위내는 것이라 주장한다: “신화의 역할은 현실을 비우는 것이다: 말 그대로 그것은 끊임없는 표류, 출혈, 혹은 어쩌면 증발일 수 있으며, 요컨대 인식가능한 부재이다”(143). 실제 존재하는 현실을 비우고 그 위에 초현실(hyper-reality)을 세우는 것이 바로 신화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재구성된 초현실은 실제 현실을 은폐하고 실제 현실을 가장한 채 사회 구석구석을 누비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신화로 재구성되는 초현실은 역사(history)조차 자연(nature)으로 환원시킨다(129). 식민화 역시 신화가 되었을 때 특정 역사 시기에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늘 있어왔던 인간의 조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역사를 자연으로 둔갑시키는 “신화”의 역할을 충직한 “신화”에 비유한 바르트의 설명은 꽤 적절해 보인다(151). 주인이 나타나기 전 모든 일들을 마치고 사라지는 노예는 일들이 행해지는 과정을 은폐한다. 마찬가지로 원주민들의 원시적 댄스는 어떤 경위에서 어떤 문화적 연유에서 행해지는지 그 원인을 찾기 이전 관광객들에게는 그저 이국적인 몸짓이 되어버린다(151). 즉, 신화로 인해 기표와 기의가 연결되는 역사적 맥락의 특수성은 제거되고 원래의 기의는 왜곡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회 속에서 신화는 신화로서가 아니라 그 어떤 논증과 의문제기도 요구치 않는 자연적인 개념 혹은 사실로서 유포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어의 신화화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속담이나 격언처럼 늘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유사진실 언술을 통해 신화가 유포된다는 것이다. 신화와 속담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바르트의 언급은 꽤 의미심장하다: “신화는 속담 쪽으로 기운다. 보편주의, 설명에 대한 거부, 불변의 위계질서 등 신화가 갖는 특징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핵심과 뒤얽혀 이해관계를 형성한다”(154). 이데올로기적 의도가 농후한 신화는 결국 “보편성”이란 가면을 쓰고 또 하나의 세상(hyper-reality)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에게서 의구심을 원천봉쇄하는 기능을 하는 속담과 격언은 신화와 꽤 연관이 깊다. 조이스가 문제제기한 “아이리쉬블”(U 14.581)이란 표현 역시 이디엄의 가면 아래 실제 아일랜드에 대한 또 하나의 세상을 창조하여 피식민지인 아일랜드를 평가절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매복해 있다.

그렇다면 신화가 갖는 이러한 정치적 의도 앞에 주체는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바르뜨는 신화에 대항하는 무기는 신화를 다시 신화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실을 말하자면, 신화에 대항하는 최선의 무기는 아마도 신화를 다시 신화화하여 *인위적인 신화*를 생산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재구성된 하나의 신화(myth)는 사실 하나의 신화체계(mythology)가 될 것이다. 신화가 언어로부터 무언가를 강탈한다고 한다면, 왜 신화를 강탈해서는 안 되는가 말이다. (135)

「태양신의 황소」에서 정전 작가들의 문체를 패러디하여 식민화되기 이전 영어를 되찾으려는 조이스의 노력은 식민화와 민족주의의 신화 자체를 역신화화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신화 속에 감추어진 언어의 의미구조의 역학관계를 들추어내야 한다는 바르뜨의 주장은 언어와 아기의 탄생의 과정을 접목하여 신화로서의 화석화된 언어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으로서 새로이 육화(reincarnation)되는 언어의 탄생을 기록하려는 조이스의 노력과 닮아 있다.

### III. 탈신화화의 열쇠, 아이러니

문학기법 “아이러니”는 역사적인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개념들을 보편타당하고 자연적인 언어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신화를 다시 역신화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이러니에 대한 개념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본래 은폐(dissimulation)의 의미를 갖는 희랍어 eironeia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플라톤의 『공화국』(*Republic*)에 처음 기록된 이 용어는 고대 희랍시대의 Alazon과 Eiron이라는 두 희극 인물과 관계가 있다. 전자는 고집이 세고 오만하며 자신을 실제 이상의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던 인물이고, 후자는 스스로를 비하하여 나약하고 힘없는 인물로 가장했다. 그러나 Eiron이 표면적으로는 Alazon보다 약하지만 영리하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된다. 따라서 “eiron이라는 말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고 얼버무려, 적의를 숨기고 우의를 가장하여 자신의 행동을 거짓으로 나타내고 결코 솔직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의도를 은폐시키는 것을 뜻한다(Muecke 14).

용어 “아이러니”는 소크라테스에 관한 키에르케고르의 저서 『아이러니의 개념』(*The Concept of Irony: With Continual Reference to Socrates*)에서 사용되면서 비로소 일반화되기 시작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아이러니를 “무한한 절대적 부정성”(infinite absolute negativity)으로 정의한다(261). “무한한 가능성”(infinite possibilities)이라는 역사에 대한 조이스의 정의를 상기시키는 키에르케고르의 아이러니에 대한 정의는 신화와 연결되었을 때 오히려 긍정성과 생산성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어느 한 가지 의미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신화와는 반대로 아이러니는 신화의 이데올로기적 족쇄를 풀고 무한한 의미화의 향연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러니가 있는 한, 주체는 자유롭다:

아이러니에서 주체는 부정적으로 자유롭다. 왜냐하면 주체에게 만족감을 주도록 되어 있는 실제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어진 현실이 옳아매는 제한으로부터 주체는 자유롭다 [...] 말하자면, 주체는 무한한 가능성 속에 흠뻑 취하게 된다. (262)

아이러니는 주체에게 자유를 허락한다. 아이러니가 있는 한 주어진 현실은 주체를 묶어둘 수 없으며 주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아이러니를 말하는 주체는 늘 부정적으로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이러니를 쓰는 한 사회적으로 규정된 언어의 협소한 의미를 부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체에게 부여된다는 의미이며 아이러니를 통해 사회가 규정하는 언어의 탈정치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아이러니가 갖는 어원적 의미와는 반대로, “무한한 절대적 부정성”으로서의 아이러니는 바르트의 신화개념에 맞서 현실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은폐된 현실을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고 키에르케고르는 지적한다:

아이러니는 세상을 이해하는 아이러니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주변 세상을 신비화하려고 하는데, 이는 스스로를 숨긴 상태로 남아 있으려고 한다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폭로하도록 하는 것을 선호한다. [...] 이와 비슷한 신비화가 때로는 문학에서도 필요한데, 짝을 찾아주는 대파처럼 저자를 찾아내는 기민한 문인들의 무리에 의해 저자는 결국 사방으로 둘러싸이게 된다. (251-2)

위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아이러니가 주변세계를 “신비화”(mystify)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곧이어 은폐가 목적이 아니라 폭로가 아이러니의 목적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여기서 신비화의 의미는 신화로 인해 이미 신비화된 세상에 대한 “탈신비화” 혹은 “탈신화화”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문학에 있어서만큼은 그 반대로 철저하게 신비화 내지는 탈신비화의 비밀을 유지하여 저자의 신원을 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이러니스트의 신비화에 대해 키에르케고르는 신분을 숨기고 변장한 채 익명으로 돌아다니는 왕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익명의 왕 역시 누군가에 의해 신분이 탄로날 것을 기다리는, 다시 말하면 해석되기를 기다리는 아이러니인 셈이다.

아이러니가 갖는 이러한 탈신비적/탈신화적 힘은 과거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러한 목적에서 아이러니는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정복할 수 없을 안테우스와 싸우는 헤라클레스처럼 작용한다. 주지하듯 헤라클레스는 안테우스를 땅으로부터 들어올려 그를 패배시켰다. 아이러니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적 사실을 다룬다. 눈 깜짝할 사이 모든 역사는 신화-시-전설-동화가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아이러니는 다시 자유를 얻게 된다. (277)

아이러니는 그것이 원하는 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구속력이 없으며, 아이러니가 무한한 자유 속에 이론적 영역에서 비판적인 만족감을 즐기는 것처럼 실제의 영역에서도 이와 똑같이 구속도 제한도 모르는 신성한 자유를 누리며, 거대한 바다짐승(leviathan)처럼 자유롭게 뛰는다. (279)

아이러니에게는 과거와 역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안테우스를 들어올리는 헤라클레스처럼 역사적으로 고정된 일들을 지상 위로 들어올려 뒤집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키에르케고르가 사용한 “신화”라는 용어는 바르뜨 이론의 “신화” 개념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바르뜨가 사용한 신화의 의미는 이데올로기적인 협소한 의미로 국한되는 반면, 키에르케고르의 주장에서 아이러니가 과거를 신화로 바꾼다는 의미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고정된 의미에서 무한한 의미의 향연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므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탈신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아이러니는 끝과 한계를 허락하지 않는 무한한 힘을 갖고 있다. 아이러니가

있는 한 과거는 더 이상 현실을 옥죄지 못한다. 모든 과거를 돌이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아이러니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14장에서 식민화에 대한 우화를 쓰는 조이스의 의도 또한 이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식민화라는 역사적 “신화”를 뒤집어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하나의 조크로 만들어 버리는 조이스의 전략은 식민화라는 신화적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고 식민화 자체가 갖는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면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IV. 「태양신의 황소」에 나타난 아이러니

“앞뒤가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농담”이란 의미로 통용되는 이디엄 “아이리쉬 불”의 유래는 무엇일까? 다각도에서 살펴볼 때 “아이리쉬불”이란 표현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문자 그대로 아일랜드산 황소를 의미할 수 있고, 둘째, 『옥스포드영어사전』(*The Oxford English Dictionary*)에 기록된 사전적 의미를 따르자면 오늘날 이디엄으로 남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나 명백한 모순을 포함하는 진술”(a self-contradictory proposition, an expression containing a manifest contradiction in terms or involving a ludicrous inconsistency unperceived by the speaker)을 뜻할 수 있으며, 셋째, “bull”이란 단어가 교황의 칙서란 의미를 담고 있기에 아이리쉬불은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를 공식화하는 식민공식문서를 뜻할 수 있고(최석무 147),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영국인을 뜻하는 “john bull”과 대칭을 이루어 아일랜드인을 지칭할 수 있다. 이 모든 의미들은 「태양신의 황소」 에피소드 중 스위프트의 풍자소설 『터무니없는 이야기』(*A Tale of a Tub*)를 패러디한 부분(U 14.581-650)에 한데 뒤섞여 나타나며, 조이스는 텍스트 속에 실제 아일랜드산 황소를 등장시킴으로써 이디엄으로 박제화된 언어에 실체를 부여한다.

14장에서 블룸과 스티븐, 그리고 멀리건을 비롯한 홀레스가의 국립산과병원의 의학도들은 그 날 아침 부두로 향하던 소떼들이 어떻게 하여 영국인의 식용으로 도살되는지에 관한 대화를 나눈다. 러시아의 저명한 수의사인 린더페스트(Rinderpest)가 조만간 아일랜드를 방문하여 소의 아구창을 치료할 예정임을 스티븐이 말하자 린치는 이 자가 아일랜드의 황소의 사건에 참견하는 것은 분별력이 결여된 처사라며 몹시 힐난한다. 이어지는 린치와 덕슨 사이의 대화 속에서 황소



에 관한 복잡한 우화가 아일랜드의 두 교회들에 관한 풍자와 더불어 열띠게 전개되는데, 이 복잡한 우화 속에서, 이디엄으로 굳어지면서 정치성이 거세되었던 언어는 비로소 육화되고 예의 풍부한 정치적 함의는 복원된다:

그[린더페스트 의사]가 황소에 손을 대면 스스로 딜레마의 뿔에 걸리고 말지니, 그[빈센트씨]는 말하도다. 명실공히 아일랜드의 소 말이라도, 스티븐이 이르나니, 그리하여 그는 주위의 술잔에 맥주를 따르며, 영국의 도자기 상점의 한 마리 아일랜드 황소라, 했도다. 자네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겠노라, 덕슨이 말하도다. 그것은 그들 모든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용감한 축산업자, 니콜라스 농부가, 그의 코에 에메랄드 코뚜레를 끼워, 우리들의 섬에 보낸 저 똑같은 황소로다.

He[Doctor Rinderpest] will find himself on the horns of a dilemma if he meddles with a bull that's Irish, says he[Mr Vincent]. Irish by name and irish by nature, says Mr Stephen, and he sent the ale purling about, an Irish bull in an English chinashop. I conceive you, says Mr Dixon. It is that same bull that was sent to our island by farmer Nicholas, the bravest cattlebreeder of them all, with an emerald ring in his nose. (U 14.578-584)

젊은 외과의사인 덕슨이 언급한 “I conceive you”에서 동사 “conceive”의 의미는 물론 문맥상 “이해하다”라는 뜻이었으나, 동시에 “시각화하다”(visualize)와 “임신하다”(be pregnant)라는 의미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일랜드 황소는 한낱 이디엄 속에 등장하는 추상적인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 황소로 시각화되며 이로부터 무궁무진한 의미들이 수태되게 된다. 물론 인용 첫 부분에 등장하는 “아일랜드 황소”(a bull that's Irish or irish bull) 그리고 “영국 도자기 가게 안의 아일랜드 황소”(an Irish bull in an English chinashop)는 “아이리쉬불”이라는 이디엄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의미 - 서툴고 정교하지 못한 행태 - 를 그대로 반복한다: “실수를 저지르고 일을 망치는 서투름에 대한 속담 표현이 여기에서는 아일랜드인과 교황의 교서에 대한 말장난, 그리고 영국 도자기 산업에 대한 평판에 의해 더욱 복잡해진다”(Gifford 424). 정교하고 깨지기 쉬운 도자기 상점 안에 있는 황소 같은 존재가 바로 아일랜드라 했을 때,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경제적 문화적 수탈은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문화적 서열 속에 은폐되고 이러한 이디엄은 문화적으로 우세한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를 정당화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디엄 속에 등장

하는 똑같은 황소가 농부 니콜라스에 의해 아일랜드섬에 보내진 최초의 황소로 둔갑할 때 “아이리쉬불”이라는 이디엄 속에 숨겨진 정치적, 역사적 의미는 복원된다.

문맥상 이 황소는 영국 왕 헨리 2세를 지칭하며 동시에 아일랜드의 가톨릭교회를 상징한다. 유일한 영국 출신 교황인 아드리안(Adrian) 4세의 본명은 니콜라스 브레이크스피어(Nicholas Brakespear)로서 헨리 2세에게 아일랜드의 지배권을 부여하였는데 이때부터 영국 왕과 교황의 결탁은 시작되고, “존 황소”(John Bull) 영국인의 아일랜드 지배권은 강화되었다. 기포드(Don Gifford)의 주석에 따르면, 아일랜드 침공에 대한 교황의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헨리 2세는 아일랜드의 심각한 도덕적 부패와 무종교를 비난한 바 있다(424). 식민화와 종교 사이의 끈끈한 공모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조이스는 영국의 아일랜드에 대한 식민화를 농부 니콜라스가 아일랜드에 보낸 황소 코에 끼워진 에메랄드 코뚜레로 회화화하는데 이 역시 1155년 교황 아드리안 4세가 헨리 2세에게 아일랜드의 식민화를 허락한다는 징표로 에메랄드 반지를 하사했다는 실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다(Atherton 326). 얼핏 아일랜드를 미화하는 것처럼 들리는 “에메랄드 섬”(emerald isle)이란 아일랜드의 오랜 별명 역시 아일랜드 식민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텍스트에 등장하는 두 번째 황소는 헨리 8세를 지칭하며 동시에 그가 더블린에 설립한 영국 성공회로 비유된다. 이처럼 우화 속의 황소들은 두 다른 교회를 대표하고, 무지한 아일랜드 국민들에 의해 이 두 황소들이 어떻게 우상화되었는지에 대한 조이스의 신랄한 풍자가 이어진다.

그리하여 그들은 황소에게 털옷을 입혀 주었느니라, 그는 가로되, 레이스 슈미즈 및 어깨걸이와 띠가 달린 속치마를 입혔나니 그리하여 그의 팔목에다 주름장식을 달게 하고 이마의 앞머리를 가위로 자르고 온몸에 경랍을 짜서 만든 기름을 문질러 발랐나니 그리하여 그가 마음껏 자고 똥도 낼 수 있게끔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건초를 황금의 여물통에다 가득 채워 각각의 길모퉁이에 마구간을 세웠던 것이라네.

And they dressed him, says he, in a point shift and petticoat with a tippet and girdle and ruffles on his wrists and clipped his forelock and rubbed him all over with spermacetic oil and built stables for him at every turn of the road with a gold manger in each full of the best hay in the market so that he could

doss and dung to his heart's content. (U 15.599-604)

식민주의자들(colonizers)에 대한 아일랜드 국민들의 자발적인 복종은 황소에게 페티코트를 입히고 황소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비정상적인 행위로 조롱된다. 또한 “황소의 귀에 대고 소곤거리기 위해”(whisper in his ear in the dark of a cowhouse, U 14.596-7) 황소를 뒤따르는 아일랜드 여인들은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당대 아일랜드인들의 정치적 우매함을 풍자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농부 니콜라스가 아일랜드에 데려온 이 황소가 이미 거세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무엇 때 문이겠소, 덕슨씨가 말하는지라, 그러나 그가 이곳으로 건너오기 전에 거세당한 내시였던 농부 니콜라스는 자기 자신보다 더 나를 것도 없는 한 무리의 의사들로 하여금 그를[황소를] 이미 정식으로 거세하도록 했던 것이로다”(U 14.589-91). 막강한 힘을 지닌 듯 보이는 식민화라는 신화를 역신화화하여 그 권력을 거세하려는 조이스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아일랜드 여인들이 모두 이 황소 뒤를 따르는 통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일랜드 남성들을 묘사하는 조이스는 역으로 그들의 남성성을 강조한다: “섬나라 남자들은, 그때위 은혜를 모르는 여인들이 모두 한마음이 된 채, 바야흐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자, 뗏목을 만들어, 배 위에 자신들의 몸뚱이와 그들의 가재를 싣고, 돛대를 모조리 세우고, 활대들도 가동시키고, 배의 이물을 바람부는 쪽으로 돌렸나니...”([T]he men of the island seeing no help was toward, as the ungrate women were all of one mind, made a wherry raft, loaded themselves and their bundles of chattels on shipboard, set all masts *erect*, manned the yards, sprang their luff [ . . . ] [U 14.640-3, 필자 이탤릭]). 조이스의 반여성주의(anti-feminism)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떠나, 이는 분명 “아이리쉬불”이라던가 “영국 도자기 상점 안의 아일랜드 황소”라는 표현들 속에 평가절하되어 온 아일랜드의 힘을 복원시킨다.

이렇듯 “bull”이라는 단어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는 황소로 육화되어 14장에 피소드를 뒤덮으며 영국에 의한 아일랜드 식민의 역사를 폭로한다. “아이리쉬불”이라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정치성도 없는 듯 보이는 이디엄을 날카로운 비판과 풍자로 파헤치기 위해 실제 아일랜드 황소를 등장시키는 조이스의 의도는 언어의 육화, 언어가 갖는 본연의 힘을 보여주기 위함이 분명하다. 결국 이디엄이 갖는 탈정치성을 극복하고 그 속에 담긴 역사성과 정치성을 복구시키는 『울리시

스』 14장은 “언어의 재탄생”에 대한 기록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언어의 재탄생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추기 위해 언어를 획득했다는 탈레랑의 유명한 언술은 세상에 대한 심오한 아이러니를 포함하며, 정치적인 신중함의 각도에서 보자면 세상은 속임수를 당하기를 원하고 그러기에 세상을 기만하라는 순수하게 외교적인(diplomatic) 또 다른 원칙과 완전히 부합한다. (Kierkegaard 253-4)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숨기기 위해서 말을 한다”는 탈레랑(Charles-Maurice de Talleyrand)의 주장은 아이러니와 연결되었을 때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결국 아이러니스트는 자신이 의도한 진의는 숨긴 채 말을 하는 것이며 직설적으로 진의를 표하지 않았기에 안전하다. 그러나 아이러니가 세상을 기만한다는 키에르케고르의 주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이러니로 간주하여, 세상에 난무하는 현혹적인 신화들을 아이러니가 교묘히 탈신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조이스가 패러디하는 원전 작가인 스위프트의 「점잖은 제안」(“A Modest Proposal”)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아일랜드의 아기를 음식으로 변용시키는 스위프트의 아이러니는 식인주의(cannibalism)를 연상시키는 영국의 아일랜드에 대한 식민적 수탈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아일랜드의 참담한 실상을 폭로한다. 비평가 존 트러고트(John Traugott)는 그의 논문에서 아이러니를 “피를 빨아먹는 행위”(blood-sucking operation) 그리고 아이러니 작가를 “흡혈귀”(vampire)에 비유한 바 있다: “아이러니 작가는 우리가 죽고 사는 생각의 언어적 형식으로부터 의미를 도려내는데, 만일 아이러니스트의 전복적인 수사학이 잘 되면 그것은 무(nothingness)라는 괴로운 감각을 우리에게 감염시킨다”(31). 흡혈귀처럼 언어에서 의미를 비워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화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의미로 고정된 족쇄를 풀고 언어를 해방시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아이러니는 탈식민문학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글쓰기 전략이 될 수 있다. 일종의 복화술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무언가에 대한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비평가 앤드루 김슨(Andrew

Gibson)은 그의 저서 『조이스의 반격』(*Joyce's Revenge*)에서 『율리시스』 전체를 하나의 아이리쉬불로 해석하기도 한다: “『율리시스』는 거대한 아이리쉬불과도 같이 작용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해, 『율리시스』를 인용하자면, ‘영국 도자기 상점안의 아이리쉬불’이다”(17). 정교하고 깨지기 쉬운 도자기가 진열되어 있는 영국 도자기 상점 속의 황소처럼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영문학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허무맹랑한 농담을 의미하는 아이리쉬불이란 이디엄은 바르뜨가 지적하는 신화로서의 언어의 폭력에 다름 아니다. 800년이 넘는 아일랜드의 질곡의 식민 역사는 이 이디엄 한 마디로 인해 어느 만큼 당연시되고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에 실제 아일랜드산 황소를 등장시킴으로써 조이스는 탈정치화된 신화로 둔갑하기 이전의 비옥한 땅으로서의 언어로의 회귀를 꿈꾸는 듯하다. 뒤이어 15장에서 조이스는 “아이리쉬불”과 대조를 이루는 “buybull”이란 신조어를 등장시키는데 이는 “Buy John Bull” 즉 영국 상품만을 구입하라는 천박한 상업주의의 의미로 식민화에 연루된 종교적 침탈과 경제적 약탈의 교묘한 연합을 폭로한다. 동시에 교황칙서를 돈으로 산다는 뜻도 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조이스는 식민화에 있어서 자행된 온갖 폭력에 대한 종교의 묵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14장은 스티븐과 술취한 의학도들의 회화를 피기스럽게 뒤섞으며 사투리, 유행어, 은어, 속어, 허튼 소리, 잡소리, 외래어, 신조어, 생략어 등으로 끝을 맺는다. 이러한 혼성의 에펠로그는 신화화되기 이전의 언어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혼재된 무질서한 언어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탈되기 이전 상태 즉, 키에르케고르가 언급한 “무한한 부정적 가능성”을 그대로 재현하는 듯하다. 결국 「태양신의 황소」 에피소드에서 삼일 동안의 산고 끝에 탄생하는 것은 푸어포이부인의 아기만은 아니다. 신화로 인해 탈정치화되고 박제화된 언어 역시 아이러니를 통해 고대영어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정전작가들의 문체를 초월하는 “다성적 언어(heteroglossia)”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안양대)

## 인용문헌

- 최석무. “The Motif of ‘Buybull’: Joyce, Religion, and Colonization.” 『제임스조이스저널』 4(1997): 137-159.
- Atherton, J. S. “The Oxen of the Sun.” *James Joyce’s Ulysses: Critical Essays*. Eds. Clive Hart & David Hayma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4. 313-339.
- Barthes, Roland. *Mythologies*. Trans. Annette Lavers. New York: Hill and Wang, 1972.
- Dueke, B. C. *Irony*. London: Methuen, 1969.
- Gibson, Andrew. *Joyce’s Revenge: History, Politics, and Aesthetics in Ulysses*. New York: Oxford UP, 2002.
- Gifford, Don and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8.
- Joyce, James. *Ulysses*. New York: Penguin, 1986.
- Kierkegaard, Søren. *The Concept of Irony: With Continual Reference to Socrates*. Eds. & Trans.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Princeton UP, 1989.
- Traugott, John. “‘Shall Jonathan Die?’: Swift, Irony, and a Failed Revolution in Ireland.” *The Politics of Irony: Essays in Self-Betrayal*. Eds. Daniel W. Conway & John E. Seer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31-51.

**Abstract**

“Irish Bull” vs “Buybull”: The Rebirth of Language  
through Joyce’s De-Mythifying Irony

Kyoung-sook Kim

This essay analyzes how James Joyce de-mythifies language through the use of irony in “Oxen of the Sun” episode and how he records the rebirth of language. This analysis is based on Roland Barthes’ theory on myth and Søren Kierkegaard’s theory on irony. According to Barthes, myth is a depoliticized language, which turns history into nature. According to Kierkegaard, irony can be defined as “infinite absolute negativity.” Irony, this essay argues, can demythify, disillusion, and thus reincarnate language.

In “Oxen of the Sun” episode, Joyce seems to entwine the birth of Purefoy’s baby along with the birth/rebirth of language. Especially the part in which a real Irish bull appears on the text through a fable of colonialism lays bare the political intentions hidden in the mythified language. The idiom “Irish bull” means “a self-contradictory proposition, an expression containing a manifest contradiction”; the idiom “an Irish bull in an English chinashop” is a proverbial expression for blundering and destructive clumsiness. These idioms, an example of mythified language, can be used as an alibi for British colonialism for the Irish who, according to the idioms, cannot think logically or act carefully enough to control themselves. By bringing the literal bull onto the text as a symbol of the colonizer, Joyce tries to retrieve the original, political, signified of language before mythification. In “Circe,” Joyce coins a term “buybull” in order to criticize religion’s collusion with commercialism and colonialism. In this way, Joyce frees language from the fetters of depoliticizing mythification. The emancipated language takes the forms of drinkers’ chaotic conversation in the very last part of the episode,

so-called “oxen tail,” which embodies “heteroglossia.” After all, what is born in “Oxen of the Sun” chapter is not only Purefoy’s baby; the depoliticized, fossilized, and mythified language is reborn in the form of heteroglossia transcending all the canonized writers’ styles.

■ Key words : Oxen of the Sun, Irish bull, Roland Barthes, Søren Kierkegaard, myth, irony, language  
(태양신의 황소, 아이리쉬불, 바르뜨, 키에르케고르, 신화, 아이러니, 언어)

논문 접수: 2009년 11월 15일

논문 심사: 2009년 11월 20일

게재 확정: 2009년 12월 15일